



강자에
〈두산·SK〉
강하고

약자엔
〈삼성·NC·롯데〉
약하고

가을잔치 꿈꾸는 KIA '약팀 징크스' 넘어라

선두 두산에 거둔 승리 대부분 역전승 ... 2위 SK에도 7승4패 우위
최하위 NC에 밀리고 순위싸움 삼성·롯데 열세로 상대에 힘 실어줘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 약한 '강강약약'의 KIA 타이거즈다.

2018시즌은 두산 베어스의 독주로 요약할 수 있다. 두산은 지난 4월 8일

단독 1위로 올라선 뒤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두산은 한화 이글스와 7경기 차로 올스타브레이크를 맞았고,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전에는 2위 SK 와이번스와의 격차를 10경기 차까지 벌였다.

사실상 한국시리즈를 예약한 절대 강자인 만큼 각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2위 SK, 4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선 넥센 히어로즈와 6승 6패로 호각세지만 롯데 자이언츠와의 대결에서 10승 3패, 삼성 라이온즈에는 10승 4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 지붕을 쓰는 LG 트윈스와의 올 시즌 11번 만나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군 매치'에서는 승보다 패가 많다.

지난가을 두산을 꺾고 'V11'에 성공한 KIA는 올 시즌에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끝내고 리그가 재개된 4일에도 KIA는 두산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1-3으로 뒤진 8회초 김선빈의 몸에 맞는 볼과 함께 대공세가 시작됐다. 상대 실책 두 개가 연달아 나왔고 대타 작전도 성공적이었다.

벤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금메달의 주역' 안치홍이 1점 차로 좁혀진 1사 1-2루 함덕주와의 대포팀 맞대결에서 동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공격에 불을 붙였다. KIA는 타자일순하며 8회에만 대거 9점을 뽑아내면서 10-5 승리를 가져왔다.

이날 승리까지 포함 KIA가 최근 두산에 거둔 6승은 5월 10일 나온 안치홍의 끝내기 안타를 시작으로 모두 역전승이다. 4일 현재 상대 전적은 8승 6패.

KIA는 2위 SK에도 7승 4패로 앞서있다. 5월 18일 시작된 시즌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진정을 상대로 한 최정민의 프로 데뷔 홈런, 헛타의 완투 등으로 싸움이 3연승을 이뤘다. 문학에서 진행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KIA는 두 경기에서 39득점을 폭발하며 2승을 모두 챙겼다.

1-2위에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KIA는 롯데와 8위 싸움을 하고 있다. 약팀에 약했다. 최하위 NC 다이노스에 유일하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팀이 바로 KIA다.

KIA는 올스타브레이크에 앞서 치른 마지막 원정길에서 NC에 싸움이 3연패를 당하고 돌아오면서 순위 싸움에 큰 타격을 받았다. KIA는 삼성의 5강 싸움에도 큰 힘을 실어줬다.

7월 18일 헛타가 5이닝 6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된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 5연패 중이다. 7월 27일 대구 원정에서는 연장 11회초 2점을 뽑아냈지만, 부담 많은 상황에서 프로데뷔전에 나선 고영창의 난조속 3실점을 하며 끝내기 패를 당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4승 7패.

역시 올 시즌 어려운 행보를 해왔던 롯데에도 4승 7패로 열세다.

막내 kt에도 개막전부터 한방을 얻어맞는 등 시즌 초반 3승 5패를 기록했던 KIA는 6월 첫 원정에서 스윙에 성공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6-7일 7승 7패로 맞선 넥센을 만나는 KIA는 오는 8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NC-롯데와 원정경기를 벌인다. 약팀 약세 만회라는 숙제가 '가을 잔치'를 꿈꾸는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끝낸 KIA가 지난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8회 대거 9점을 뽑아내면서 10-5 승리를 거뒀다. 동점 적시타를 때린 안치홍 등 KIA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안병훈·김시우
바늘구멍 뚫는다

PGA 투어 PO 3차전 내일 개막

미국의 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가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해 달린다.

PGA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이 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근교 애러리밍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다.

70명이 출전하는 3차전은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3차전 결과에 따라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만 투어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투어챔피언십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플레이오프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현재 페덱스컵 랭킹 30위 밖 선수가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내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만큼 어렵다. 지난 3년 동안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한 선수는 4명 뿐이다.

46위 안병훈과 53위 김시우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확률은 낮아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에 안병훈과 김시우의 막판 분전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김지현 '부활' 꿈꾼다

KLPGA 이태일리 오픈 참가

지난해 상반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세'는 김지현이었다.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치른 10개 대회에서 3차례 우승과 준우승 한번, 5위 두 번을 포함해 7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3승 가운데 메이저대회 한국여자오픈에 포함됐고 2주 연속 우승도 이뤄냈다. 올해도 국내 개막전 롯데 렌터카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여왕' 경쟁에 뛰어든 채비를 갖추나 싶었다. 김지현은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상금랭킹 16위(2억3744만원), 대상 포인트 20위, 평균타수 28위(71.5타)의 평범한 선수가 됐다.

이런 김지현이 부활을 꿈꾼다. 무대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용인 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KG-이태일리 레이다스오픈이다. 이 대회는 김지현이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인연이 있다. 김지현은 작년 이 대회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5m 버디 퍼트를 넣어 1타차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10일 KBO 신인드래프트 2차 지명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선발하는 2019 KBO 신인드래프트가 10일 열린다.

지난 6월 연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1차 지명권을 행사한 각 구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차 지명 행사를 통해 10명의 기대주들을 선발한다.

행사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2017시즌 성적 역순에 따라 kt-삼성-한화-넥센-LG-SK-NC-롯데-두산-KIA가 순서대로 지명 선

수를 호명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총 1072명으로 이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805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57명이다.

또 오는 10월 경찰 야구단에서 제대하는 해외파 우완 이대은과 함께 내야수 이학주, 좌완 윤정현, 포수 김성민, 외야수 하재훈 등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0명도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음 아시안게임 기간엔 KBO리그 중단 안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KBO리그가 중단되지 않는다.

KBO는 5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야구를 준비하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마칠 때까지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깊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O리그는 오는 2022년 9월 열리는 중국 항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에 한해서는 정규 시즌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한국 야구의 수준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KBSA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 기준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KBO가 중심이 되어 치른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동열 전임 감독이 이끈 한국야구 대표팀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LG 오지환을 중심으로 된 '병역 혜택 논란'은 체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쟁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